

피아니스트를 위한 음악이론복습 (자습용)

- 조표 -

여기 소개되는 피아니스트를 위한 음악이론복습 첫 시간에는 조표를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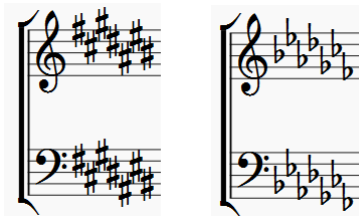


위의 악보(고향의 봄)에서 볼 수 있듯이 피아노 악보에는 제일 왼쪽에 음자리표(높은음자리표와 낮은음자리표)가 있고 그 다음에 조표 그리고 박자표가 위치하니 순서를 숙지해서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에게 조표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조표가 익숙하지 못하면 독보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곡분석은 물론이고 연주에 있어서 철저하고 세심한 암기도 불가능하게 된다.

샤프(#, sharp)과 플랫(b, flat)이 붙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샤프이 붙는 순서 --> 파도솔레라미시

플랫이 붙는 순서 --> 시미라레솔도파



참고로 이 수업 시간에 조를 쓸 때는 '다장조'식 말고 'C Major' 식으로 통일하고

자 한다. 이는 이미 도레미파솔라시 표기방식과 CDEFGAB 식의 표기방식이 세계공통으로 쓰이는 와중에 다라마바사거나 식의 우리만의 방식을 새로 익숙하게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이름은 CDEFGAB 방식이 아닌 도레미파솔라시 표기방식을 선택하겠는데 이는 후자가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조표를 읽는 방법은 샹일 경우 조표의 제일 오른쪽 샹음의 바로 위 음이 그 곡의 조가 된다. 예를 들어 아래의 악보 조표에서 제일 오른쪽 샹이 '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바로 위의 음인 '레'가 이 곡의 조가 된다. 곧 이 곡의 조는 D Major이다.



Major와 f# minor가 될 수 있다. 단3도라는 개념이 익숙지 않을 경우 3도 밑인 '파'만 생각해도 된다. 그런데 '파'에 이미 샹이 있으므로 f# minor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방식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음악에서는 장조이든 단조이든 오로지 하나만이 사용되는데 곧 이 곡이 A Major이거나 f# minor 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찾는 방식은 곡의 시작음과 끝음을 살펴보면 된다. A Major는 '라'와 3음 위인 '도#' 그리고 5음 위인 '미'의 화음으로 그 대표성질을 표현할 수 있고 f# minor는 '파#'과 3음 위인 '라' 그리고 5음 위인 '도#'의 화음으로 대표성질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곡의 시작음과 끝음이 A Major의 대표화음에 속하는지 f# minor의 대표화음에 속하는지 살펴보면 된다.

다음 곡의 조표는 무슨 조가 될 수 있으며 이 곡에 합당한 조는 무엇인가?

답 : D \flat Major 와 b \flat # minor. 합당한 조는 D \flat Major



<퀴즈>

1. B Major의 조표를 오선지에 그리시오.

답:



2. c minor의 조표를 오선지에 그리시오.

답:



3. 다음의 조표들은 어떠한 조성이 될 수 있는가? (각 조표에 두 개씩의 조성을 쓸 것)



답: A \flat Major
f minor



G \flat Major
b \flat minor

4. 다음 곡들의 조는 각각 무엇인가?



답 : e minor



답 : Gb Major



답 : Bb Major